SBS 사보

사훈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제1164호 | 2021년 4월 8일(목)

@sbsnow

발행인 SBS **편집** 콘텐츠프로모션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전화** 02)2113-3286 **팩스** 02)2113-3359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새 아침연속극

아모르 파티

사랑하라, 지금

4월 12일(월) 첫 방송

최정윤 × 안재모 × 배슬기 × 박형준

아침연속극〈아모르 파티 - 사랑하라, 지금〉(극본: 남선혜, 연출: 배태섭/이하 〈아모르 파티〉)가 4월 12일(월) 첫 방송된다. 〈아모르 파티〉는 가족이 전부인 여자와 성공이 전부인 여자, 인생 2막 레이스에 뛰어든 극과 극 두 여자의 치열한 한판 승부와 절망의 순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인생 리셋을 그리는 힐링 드라마다. 6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최정윤과 10년 만에 SBS로 컴백한 안재모의 복귀작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배슬기가 인생 첫 악역에 도전하여 큰 기대를 모은다.

최정윤은 라라그룹의 외며느리이자 반박 불가 현모양처인 여자 주인공 도연희 역을 맡았다. 연희는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시댁과 남편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다. 자기 자신은 없던 그녀의 인생이 남편의 내연녀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지자,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고 각성하게 된다.

안재모는 배려심 깊고 진중하며, 따뜻한 남자 한재경으로 분한다. 프로골프 유망주였던 재경은 아내를 위해 자신의 꿈은 포기한 채 골프장 티칭 프로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한다.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유학 간 아내를 뒷바라지하던 재경은 오매불망 기다려 온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오면서 일생일대 파란에 휘말리게 된다.

배슬기는 재경의 아내이자 하늘이 엄마인 강유나 역을 맡았다. 유나는 자신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손 내밀어준 재경과 결혼했고, 재경의 희생으로 미국 유학을 마치고 유명 디자이너가 되어 돌아왔다. 그러나 더 큰 야망을 위해서 재경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캐릭터로 자신의 아이조차도 걸림돌이 된다면 버릴 수도, 도움이 된다면 이용할 수도 있는 인물이다.

박형준은 라라그룹 장철용 회장의 외아들이자 연희의 남편 장준호 역을 맡았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 준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둘도 없는 애처가이지만, 술자리에서는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산다는 건 부당하다'며 국가에서 '결혼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인물이다.

그밖에 연희의 엄마 역으로 이경진, 시어머니 역으로 윤미라, 연희를 물심양면으로 돕는 친구 민정 역으로 정애연, 재경의 선배이자, 민정의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윤철 역으로 김홍표를 비롯해서 김종구, 이화영, 권재환, 은희수 등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대거 캐스팅됐다.

제작진은 "상처투성이인 두 남녀가 만나 백마 탄 왕자 없이도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현실적 판타지'를 시청자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모르 파티〉는 아침연속극 맛집 SBS의 명성을 이어갈 것이다.

SBS

제주도에서 펼쳐지는 정글의 법칙 봄 특집

두근두근 설렘 유발 스타★ 총출동

병만족의 봄맞이 생존기를 담은 〈정글의 법칙, 봄〉(연출: 김진호) 편이 오는 4월 17일(토) 첫 방송된다.

봄 특집 〈정글의 법칙〉은 '봄(Spring)'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제주도의 곶자왈을 거점으로 제주의 알려지지 않은 자연을 '봄(See)'이라는 특별한 생존에 나선다.

봄 특집답게 이번 병만족은 봄을 닮은 상큼한 스타들이 함께해 재미를 더한다. '과즙美' 넘치는 이달의 소녀 츄와 '인간 비타민' 김혜윤이 그 주인공. 이 밖에도 족장 김병만을 필두로 '마린보이' 박태환, '짐승돌' 뉴이스트 백호, '정글 3회 차' 트롯 특전사 박군, 개그맨 지상렬까지 제주도의 봄을 만끽하며 활약을 펼친다.

특히 국내 편 최초로 제주 바닷속에 산다는 크래이피시 사냥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천연기념물을 찾아 나서는 남다른 탐사를 펼쳐 눈길을 끈다.

'바다에서 만나는 꽃동네'라 불리는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 연안 연산호 군락' 해양 탐사에 도전. 국내 최대의 연산호 군락지에서 '바다의 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수중 생태계를 보여준다. 또한, 국내 예능 프로그램 최초로 천연기념물 제98호 '만장굴' 비공개구간 탐사에 나선다. 수직으로 뚫린 '만장굴 제3입구' 구간의 비경을 360° VR 영상으로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정글의 법칙, 봄〉은 4월 17일(토) 밤 8시 55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봄의 설렘을 품은 생존기를 그려갈 예정이다.

인터뷰 이 사람 INTERVIEW

"〈그알〉, 〈꼬꼬무〉와 차별된 교양 새 프로 만들 것"

- 〈당신이 혹하는 사이〉 장경주 PD

2부작 파일럿으로 방송된 〈당신이 혹하는 사이〉(연출: 배정훈·장경주, 작가: 장윤정)가 제252회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음모론을 정면에서 다룬 〈당신이 혹하는 사이〉는 누가 어떤 의도와 배경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는지 심층 분석한다. 심사위원들은 "올바른 정보전달이라는 교양 본연의 정체성을 예능적인 코드에 버무린 프로그램으로, 음모론의 실체와 배후, 확산 메커니즘을 추적하면서 확대·재생산을 경계했다"고 평가했다.

4월 28일부터 시즌 1을 시작한다. 처음 기획은 어떻게 시작됐나?

작년 하반기 이런저런 기획이 좌초됐다. 본부장께서 음모론을 소재로 해보면 어떨지 제안하셨고, 장윤정 작가님이 '코로나 19-빌 게이츠 음모론'과 '후쿠시마 정화조 변사사건' 등을 담은 기획안을 작성했다. 사실 〈그알〉 출신 PD로서 음모론에 흥미가 없었는데, 기획안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함께 스터디하고 취재하면서 나름 유익한 정보도 주고, 이야기의 재미를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획 의도는?

아무리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더라도, 지상파TV가 음모론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섰기에 고민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를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개 음모론이라는 것이 5%의 사실에 95%의 거짓과 상상이 보태져 만들어지는 만큼, 사람들이 혹하는 지점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나아가 사회적 해악이나 불안을 가져오는 음모론의 경우 그 탄생의 의도와 근거를 파헤치고 최대한 검증해보는 것이 기획 의도이다.

자기소개를 해달라

눈물이 없는 편인데, 20대 중반에 M사의 〈휴먼다큐 사랑〉을 보고 오열했다. 사람 냄새 나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교양 PD가 되고 싶었다. 2010년, M사 공채 전에 운 좋게 우리 회사 공채에 붙었다. 당시 신입사원 전형은 굉장히 가혹했다. 제작 PD로 모집해서 심층 면접 후 라디오, 교양, 예능을 1주일씩 돌며 총 3주 인턴 평가를 했고, 이후 1박 2일 합숙 면접, 임원 면접 총 6단계였다. 라디오 인턴 1주일 끝나고 너무 힘들고 잘 안 맞는다는 생각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정태익·은지향 두 선배가 교양 1주일 더 해보고 그만둬도 늦지 않다고 붙잡아주셨다. 잘하지 못했는데 교양에서 좋게 봐줬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SBS에 들어오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알〉 최장 연속 근무 기록을 갖고 있고 상도 많이 받았다.

2015년 10월, 신혼여행 가 있을 때 〈그알〉로 발령 났다. 너무 빨리 가게 돼 부담도 컸고 실수도 많았지만, 사회정의에 일조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그알〉을 사랑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3년 정도 지나 하차하려 했는데, 남상문 당시 본부장께서 계속하는 조건으로 한 달가량 휴식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또 1년 반을 달렸다. 총 4년 7개월 동안 〈전두환과 5·18〉, 〈세월호〉, 〈고문 가해자들〉, 〈은혜로교회〉 등으로 상을 받기도 했지만, 30여 편 모두 자식 같이 소중하다.

연출자와 작가가 모두 〈그알〉 출신이다. 〈그알〉과 〈당혹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알〉이 사건·사고나 시사 영역에서 취재를 통해 진실을 추적한다면, 〈당혹사〉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교양과 예능을 섞은 토크쇼이다. 같은 미스터리 소재라도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디테일은 살리고, 중심이 되는 사건과 유사한 국내외 사건이나 유튜브 등에 떠도는 이야기들까지 횡으로 엮어 유익함과 재미를 추구하는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꼬꼬무〉와 비슷하다는 평도 있다.

과거의 사건을 앉아서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은 비슷하나, 〈꼬꼬무〉의 소재인 국내의 역사적 사건과는 구별된다. 과거 〈백만 불 미스터리〉가 다뤘던 전통적인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시의성 있는 뉴스들까지 미스터리 음모론에 집중하되, 이를 보완하거나 파헤치는 취재 부문을 더 늘리려고 한다. 짜놓은 각본 없이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실제로 친한 출연자들의 케미와 애드리브로 진행되는 형식도 다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많은 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시즌 1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기까지 모든 과정을 따뜻하게 이끌어주신 장윤정 작가님께 감사드린다. 한 편의 영화를 보듯 차별화된 세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멋진 출연자들을 직접 섭외하며 프로듀서 역할을 해준 배정훈 선배에게도 감사드린다. 배 선배가 인터뷰를 떠넘겨서 제가 하긴 했는데, 이제 겨우 시즌 1이 시작될 뿐 엄청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서 민망하다. 〈펜트하우스〉 주동민 선배 인터뷰를 본 후라 더 그렇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시즌 1을 잘 준비하겠다. 사우들의 관심과 날카로운 모니터링을 부탁드린다.

박상욱 CP, 배정훈 PD, 장윤정 작가, 장경주 PD

박소현의 러브게임 20th … 특별한 결혼식 열린다

1999년 4월 26일 첫 방송을 시작한 〈박소현의 러브게임〉이 20주년을 맞았다.

심야시간대에 방송되던 〈러브게임〉은 청취자들의 반응이 좋아 이듬해 봄부터 시간대를 옮겨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방송되었다. 2007년 폐지되었으나, 청취자들의 뜨거운 요청으로 1년 반만인 2008년 가을, 부활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러브게임〉이 장수할 수 있었던 데는 DJ 박소현의 힘이 크다. 박소현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진행으로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대에 청취자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활력을 준다. 이선아 PD는 "박소현 씨는 안주하지 않고 진화하는 DJ다. 감각을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다. 좋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다 갖췄다.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해서 노래를 소개할 때 한마디 얹는 말이 그렇게 감칠날 수가 없다. 특히 아이돌의 신곡이 나오면 이미 모니터하고 작곡, 작사, 프로듀싱, 기획사 등 모든 정보를 알아낸다. 대단한 DJ다"라고 말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은 4월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 20주년 특집 '홈커밍 위크'로 꾸며진다. 4월 12일(월)엔 고정 게스트였던 개그우먼 이국주가 특별 출연해 김상혁과 함께 '나만 쓰레기야' 코너에 참여하고, 4월 13일(화)은 재재가 DJ 박소현의 명언, 말실수, 〈러브게임〉 코너의 역사 등을 훑어줄 예정이다. 4월 15일(목)엔 고정 게스트인 배우 허영지와 함께 프로그램에 얽힌 청취자들의 추억담과 신청곡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4월 16일(금)엔 포레스텔라가 출연해 20주년을 축하하는 라이브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4월 14일(수)에는 '라디오랑 결혼했어요' 특집이 1층 락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펼쳐진다. 박소현이 라디오와 결혼하는 콘셉트로, 개그우먼 이은지가 사회를 보고 폴 킴, 에일리, 노을 등 축가 전문 게스트들이 출연해서 박소현의 특별한 결혼을 축하한다. 비대면 결혼식인 만큼 애청자들의 사진을 미리 받아서 '랜선 하객'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이는 SBS 고릴라 '보는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인터뷰 이 사람 INTERVIEW

"명예 사원증 들고 다시 인터뷰하고파"

- 〈박소현의 러브게임〉 DJ 박소현

20주년을 맞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언제 그렇게 됐나 와 닿지 않는다. 하루하루 했을 뿐인데 어느새 20주년이란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8년 반 만에 폐지되었을 때 어땠나?

이별의 여운이 상당히 오래갔다. 남자 친구와 헤어졌을 때도 그렇게까지 슬프거나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다. 매일매일 만나던 것을 그만두는 건 너무 힘들고 슬프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던 것 같다.

다시 프로그램이 부활했을 때 기분은?

제작진들이 자기 일처럼 정말 기뻐해 주신 게 기억에 남는다. 다들 다가와서 축하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셨다. 다시 프로그램을 맡기로 하고 첫 방송 날을 기다리던 2주일, 1주일은 신부가 결혼식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정말 설레고 행복했다.

라디오 20년에 〈순간포착〉 23년이면 웬만한 사원만큼 SBS에 드나들었다.

웬만한 연차보다 더 드나들었을 것이다. 〈골드미스가 간다〉 PD도 그렇고 저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이직이나 정년으로 SBS를 떠났다. 제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있다. 1,000회를 넘긴 〈순간포착〉은 2,000회까지 18년 남았다. 임성훈 선생님이 워낙 건강관리를 잘해서 걱정 없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가자고 다짐했다.

SBS에서 데뷔한 인연도 있다.

많은 분들이 제가 KBS 〈내일은 사랑〉이라는 드라마로 데뷔한 줄 아시지만 SBS 리포터로 데뷔했다. 당시 〈출발! 서울의 아침〉에서 스포츠/연예계/문화계 리포터를 뽑았는데 스포츠와 연예계 쪽은 지원자가 많아도 문화계는 지원자가 없었다고 한다. 예체능 전공자를 원했기 때문이다. 정상일 PD님이 수소문하다가 저를 추천받았다고 했다. 무릎 부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발레를 계속하기 힘들었던 때다. 그렇게 해서 1993년 1월 1일 〈출발! 서울의 아침〉에 처음 출연했다.

아이돌에 빠삭한 DJ로 유명하다.

음악 색깔이 독특하다거나 저의 정서와 맞는 아이돌을 좋아한다. 얼굴을 먼저 보진 않는다. 방탄소년단이 뜨기 전부터 좋아하게 된 것도 20년 전 나의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곡을 RM이 썼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를 듣고 컸는데 요즘도 이래?"하는 생각이 들었고 만나기를 원했다. 그게 2013년의 일이다. 하루에 듣는 곡이 수십 곡인데 딱 꽂히는 곡을 찾기란 어렵다. 꽂히면 그때부터 열심히 판다.

20년 동안 지각과 결석은?

추석 직전 길이 너무 막혀서, 또 어느 날은 바로 코앞인 현대백화점에서 여기까지 길이 너무 막혀서 오프닝을 못 했던 적이 있다. 몇 년 전엔 갈비뼈를 다쳐서 3주간 라디오를 쉬었다. TV 녹화는 끊어갈 수 있지만, 라디오는 생방하다가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 '봄날' 음원이 나온 날이니 2017년 2월 13일일 것이다. 〈러브게임〉에서 소개하려고 몹시 기다렸던 날이다. 병원에서 안타까워하면서 PD에게 연락했던 기억이 난다.

나에게 라디오란?

반평생 같이한 친구 같은 느낌이다. 음악으로 청취자와 소통하는데 라디오는 그 창구다. 남편과 아이가 있어야 할 나이에 그 공간을 대신 채워주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가족을 이루는 대신 다른 데다 둥지를 튼 거다.

최강 동안에 체형도 변함이 없다. SBS 사우들을 위해 비결을 공개해 달라.

출산 경험이 없어서, 또, 부모님과 살고 있어 집밥을 먹는 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일단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 모든 분들에게 술, 담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20년 넘게 같은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만 체중이 늘어도 당장 그날 먹는 걸 조절하고 운동한다. 무릎이 안 좋아 여기서 더 늘면 수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소식하고, 수영, 필라테스, 헬스 같은 운동도 꾸준히 한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전엔 매일 50분~1시간 동안 발레 스트레칭을 한다. 그래서 여전히 다리 1자 뻗기 등이 가능하다.

청취자와 사원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라디오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한다. 문자도 좀 해주시고 추억을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란다. 다들 유튜브를 본다는데 누가 라디오를 듣는다고 하면 반갑다. 미디어는 발전해 가지만 추억이 있는 매체들을 오래오래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SBS 명예 사원증 하나 발급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다음번엔 SBS 명예 사원증을 들고 사보에 나왔으면 좋겠다. 아 참, 이번에 20주년 특집 '라디오랑 결혼했어요' 행사는 저의 비혼 선언식은 아니다. 아직 결혼에 대해 열려 있다.(웃음)

올 하반기 런닝맨 베트남판 시즌 2 론칭!

이커머스 '런닝몰' 론칭으로 K-브랜드 동반 성장 노려

<런닝맨> 베트남판 시즌 1 제작발표회

SBS가 올 하반기, <런닝맨> 베트남판 시즌 2를 선보인다. SBS는 2019년 베트남 HTV를 통해 선보인 <런닝맨> 베트남판으로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신 한류'를 이끈 바 있다.

시즌 2에는 SBS와 <런닝맨> 베트남판을 비롯해 다수의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한 현지 제작사 라임 엔터테인먼트(LIME Entertainment)뿐만 아니라, 베트남 최대의 TV SHOW 제작사인 동타이 프로모션(Dong Tay Promotion)이 제작투자사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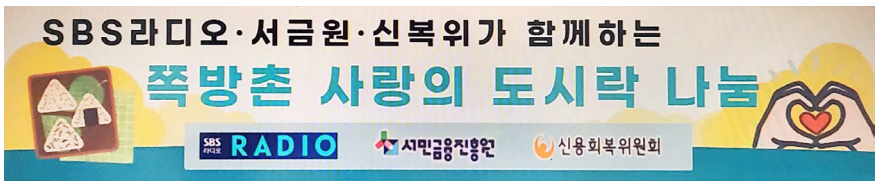
HTV7을 통해 방송될 <런닝맨> 베트남판 시즌 2는 2~3명의 새로운 멤버를 비롯해서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사랑받는 연예인들로 구성된다. 라임 엔터테인먼트의 윤상섭 대표는 "한국과 베트남 제작진의 축적된 협업 경험으로 전작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게임과 세트 등 새로운 볼거리가 베트남 시청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시즌 2는 시즌 1과 차별화된 <런닝맨>을 선보이고자, 새로운 부제를 덧붙여 기대감을 더할 예정이다. 동타이 프로모션 관계자에 따르면 "제목은 공모 이벤트를 통해 시청자가 직접 뽑게 되며, 이런 소통으로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글로벌콘텐츠Biz팀장은 "팬데믹으로 1년 넘게 중단된 글로벌 공동제작 사업을 SBS가 <런닝맨> 베트남판 시즌 2를 통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개될 K-콘텐츠의 비상을 대비한 선제적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즌 2 론칭에 맞춰 이커머스몰인 '런닝몰(Running Mall)'도 론칭될 예정이다. 글로벌콘텐츠Biz팀은 이를 기점으로 올해가 K-콘텐츠, K-브랜드의 동반 진출과 성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BS 라디오, 쪽방촌에 사랑의 도시락 전달



SBS 라디오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31일(수),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도시락 500개를 기부했다. 이번 도시락 기부 행사는 2월 한 달간 고릴라 앱에서 진행한 '사랑의 도시락 나눔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기부금으로 마련되었다. 청취자들이 공감 로그를 누르는 만큼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부금을 내는 방식이다. 캠페인 총 적립액은 천만 원으로, 서울 중구 통인시장에서 도시락 1,000개를 구매해 2회에 나눠서 전달한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전통시장도 돕고 쪽방촌도 돕자는 취지이다.

앞서 3사는 방송을 통해 청취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돕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캠페인을 준비했다. 캠페인 담당자인 박정일 사우는 "돈만 전달해주는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색다른 형식을 고민하다가 사랑의 도시락 나눔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 좋은 일을 하면서 고릴라 홍보도 겸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차분 도시락은 4월 중에 전달될 예정이다.

노동규, 한승구, 이승진 제149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중소벤처기업부 'K-바우처 사업' 부정실태 추적 보도'(노동규·한승구·이승진)가 제149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동 보도는 현장성을 살린 취재로 코로나 시대 펼쳐지고 있는 각종 정부 정책 사업의 부실한 상황과 구조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3월 25일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이승진(A&T) 노동규 한승구

<펜트하우스> 청아예고 굿즈 완판!

<펜트하우스> 공식 굿즈가 하루 만에 완판되었다.

스튜디오S는 <펜트하우스> 시즌 2 종영에 앞서 3월 26일(금), <펜트하우스> 청아예고 콘셉트의 7종 굿즈를 SK스토아를 통해 출시했다.

메모 패드, 마스크 스트랩, 자석, 파우치, 볼펜, 스터디 플래너, 그리고 4가지 종류의 스티커로 구성된 7종 패키지는 하루 만에 품절돼 젊은 층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펜트하우스>의 열풍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펜트하우스> 굿즈를 기획한 스튜디오S 관계자는 "시험적으로 1,000점을 준비했는데 순식간에 동이 났다. 시즌 3에서는 더욱 다양한 굿즈 상품을 준비하겠다.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황재호 부장, 신일현 차장 안식년

ERP팀 황재호 부장, 신일현 차장이 5월에 안식년을 맞이한다.

황재호 부장은 창사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 근무를 시작하여 30년간 프로그래밍의 한길을 걸어왔다. 종합 OA, ERP 그리고 WISE 시스템에 이르는 SBS IT 시스템의 변화를 함께하였으며 자산, 총무, 인사, 그룹웨어 등 사내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여 프로세스의 개선과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SBS의 선거방송 시스템 데이터 처리 부문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혁신적인 선거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신일현 차장은 OA 장비 전문가로서 모든 사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내 OA와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목동 신사옥으로 이전 시 모든 직원들의 말단 네트워크 연결 공사를 진행하였고, 올림픽과 월드컵 등의 주요 이벤트에는 선발대로 파견되어 네트워크 및 장비 설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아 성공적 방송을 위해 헌신하는 등, 사내 업무의 디지털 IT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